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2호(2015): 277–308
투고일 2015. 01. 31, 심사일 2015. 02. 25, 게재확정일 2015. 03. 23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오 세 연·윤 경 희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오세연*·윤경희**

〈요 약〉

최근 일본인 인질사태와 시리아 조종사의 화형, 우리나라 김군의 IS테러단체의 가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IS테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IS테러집단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특히 영웅이 되고 싶고 비판력이 약하며 소외되어 있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나 게임 등의 SNS를 통한 IS가입을 권유하면서 자국 내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의 불만세력이 있거나 운둔형인 국민들까지 언제든지 테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는 자국 내 국민에 의해서도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각 기관과의 테러정보에 대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이 이우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민 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테러관련 교육과 테러에 대비한 안전강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IS테러, 이슬람테러, 인질참수형테러, 자살폭탄테러, 무차별적 총격테러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한 논의
Ⅳ.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최근 IS테러단체는 지난 1월 30일 파키스탄 남부에서 시아파 사원을 폭탄으로 공격해 60여 명을 숨지게 하고[1] 50여 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테러행위와 1월 24일 일본인 사업가 유카와 하루나(42)씨와, 2월 1일에는 일본인 기자 고토 겐지(47)의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IS테러에 대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그간 IS테러단체의 목표가 된 인물들이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 출신이었다면 2015년을 기점으로 위의 사건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IS테러단체는 테러의 범위와 세역을 확장하면서 아시아인도 그 테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위의 사건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역시 더 이상 IS테러단체의 테러위협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0년 전인 2004년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 씨가 수니파 무장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2]과 지난 1월 AFP통신 등 외신들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코린시아 호텔에 IS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습격해 경비원과 총격전을 벌여, 리비아 호텔에 IS 테러로 한국인을 포함한 총 9명이

1) 이데일리뉴스, “IS연계 단체, 파키스탄 시아파 사원 폭탄테러..61명 사망”, 2015년 2월 1일자.
2) 연합뉴스TV, “김선일씨 살해한 집단도 IS”, 2015년 2월 4일자.

사망한 사건[3], 그리고 터키 현지에서 실종된 우리나라의 김모군(18)이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4], 우리나라 역시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행위의 위험 가능성을 절대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IS테러 단체들의 과거 활동은 주로 자국 내 국민들을 조직원으로 형성하여 활동하였다면, 최근 테러단체들의 활동은 전 세계인을 조직원으로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회 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10대 청소년, 은둔형 국민, 이주민들을 조직원으로 형성하기 위해 게임 등의 SNS를 통한 IS가입을 권유 및 유인하면서 테러의 대상과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S테러단체의 최근 테러행위를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테러사건사례들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내 테러발생 위험가능성을 논의해보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테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IS테러단체의 개념 및 발생테러의 유형

1) IS테러단체의 개념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의 인질 참수, 테러 행위가 늘어나면서 세계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있다. 이들의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는 중동을 넘어 점점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수법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고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인질로 잡혀있던 일본인 2명을 잔인하게 참수해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전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우방국가도 적으로 간주해 비 이슬람권 전체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S의 추종세력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IS의 테러, 게릴라전, 인질극, 참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티비이데일리, "IS 요르단 조종사 살해, 日도 참수…韓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2015년 2월 4일자.
4) 연합뉴스, "김군 'IS 가담 시도' 막지 못한 책임 누구에 있나", 2015년 2월 4일자.

IS는 이라크,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를 뜻한다. 보통 명칭을 줄여서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부르거나 IS(Islamic State)라고 부른다. Levant는 아랍어의 알-샴과 같은 단어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세계는 이 테러조직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에 적대적인 나라들도 이들을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으로 단호히 규정한다. 이 단체는 2004년 잠마왓 알타위드 왈지하드(무자헤딘과 지하드 조직)라는 이름으로 결성한 뒤 여러 번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 6월 29일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었다. 특히 2004년 알카에다로부터 충성을 맹세하면서 시작되었고 무자헤딘 슈라 위원회, 알카에다 이슬람 지부, 쟈시 알파티헨, 준드 알샤하바, 카트비얀 안사르 알타위드 왈 수나흐, 제흐 알타이파 알만소라 등의 대형 조직을 포함하며 수니파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5]

다른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를 이슬람 국가로 칭하며 전 세계가 이슬람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슬람 질서는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성서의 백성'들인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피지배층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소멸한 아랍인 중심의 정통 칼리파 국가가 부활하기를 그들은 간절히 꿈꾸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니파 칼리프 제도 부활을 위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2003년부터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시작해 시리아 내전, 이르카 내전 등에 참가했고 현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와 서부 지역을 점령한 상태이며, 시리아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6]

이 때문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양한 서방세계가 이들을 적대시하며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으며 평화주의자인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이들에 대한 무력 사용까지 지지한다. 달라이 라마 또한 이들을 악의 무리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아랍권의 일부 수니파 민간측은 쿠르드족을 제외하면 대

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68148 참조.
6) Cockburn, Patrick, "Battle to establish Islamic state across Iraq and Syria", 2014년 6월 9일 작성; Liz Sly. "Al-Qaeda disavows any ties with radical Islamist ISIS group in Syria, Iraq", 2014년 2월 3일 작성.

체로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2) IS테러단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이 단체는 테러조직이라기보다는 민병대로 보고 있다. 워싱턴 전쟁 연구소 전문가 제시카 루이스는 이는 더 이상 테러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이 단체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움직이고 영토를 장악하는 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든지 향후 이라크 정부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미국 육군 정보 장교 루이스에 따르면 IS는 고급적인 군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며 믿을 수 없는 명령, 점령 체계를 갖추고 있고 수직적인 전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보고 체계가 매우 정교하다고 분석했다.[7]

또한 이들은 자금력이 충분하고 외국의 자원대등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동 포럼 지하드 활동 모니터링단 아맘 자와드 알타미미는 새로운 이라크 육군은 전술 능력이 부족하나 IS는 이와 달리 매우 능숙한 도심 게릴라전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IS가 외국인 자원군 3천명을 포함해 이라크에 6천명, 시리아에 3천명에서 5천명에 달하는 병력이 있다고 밝히며 이 외국인 중 천 명 정도를 체첸인으로 보았다. 500명에서 그 이상의 병력은 프랑스, 영국 기타 유럽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본다. 조시 로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이 단체는 매우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지상전은 승리하지 못해도 선전전에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고 분석했다.[8]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IS테러단체가 국가를 이룰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는 이유를 해외 자원병의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미국 정보당국에 의하면 매달 1000명의 해외 자원병이 들어오는데 현재 90개국 1만 9000명이 지하드에 참가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가며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IS는 현재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고자 국제사회에 더욱 거센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정규전에서 열세에 놓였고 원래 정규전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러, 게릴라, 인질극, 참수 등을 일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IS가 공개한 비디오들이 급조된 것이 많이 드러나므로 IS의 세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위

7) "Iraq city of Tikrit falls to ISIL fighters". Al Jazeera. 2014년 6월 11일.
8) http://time.com/2859454/iraq-tikrit-isis-baghdad-mosul/

축된 것을 포착한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도 대중에게 공포를 확산시키거나 내부를 단합하려고 더 잔혹해지는 등 다양하게 변화된 선동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3) IS테러단체의 특징

IS테러단체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로 지도자인 아부 오마르 알 바그다디가 주축이 되어 개인 단위의 불만 세력을 포섭하여 '생활테러'를 추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미디어와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개인 단위의 테러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 IS는 외국인 자원군 3천명을 포함하여 이라크에 6천명, 시리아에 3~5천명의 병력이 있다. 이 외국인 중 거의 천명이 체첸인이며, 500명에서 그 이상의 병력이 프랑스, 영국 및 기타 유럽 등지에서 유입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9] 또한, 영국 런던대 킹스 칼리지 전쟁연구학부의 국제 문제 연구센터(ICS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IS에 합류한 외국인 전투원은 2만7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IS에 가담한 외국인들은 주로 중동과 서방국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튀니지가 1500~3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우디아라비아(1500~2500명), 요르단·모로코(각각 1500명)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서방국가에서는 최대 4000명이 유입했으며 프랑스가 1200명으로 가장 많고, 동유럽에서는러시아 출신이 800~1500명 등 30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IS는 어린이를 살인기계로 성장시키는 대표단체로서, 그들은 어린이 수백 명을 숨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일부를 자폭 테러에 이용한다. IS는 청소년들을 소년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유혹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인기 있는 전투게임을 각색하고 IS 활동에 대한 환상을 부풀린다. 특히 IS는 남자 청소년에게는 영웅주의를,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판타지, 로맨틱시즘을 심어주며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다. 이러한 유혹은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슬람 사상도 재빨리 전파되고 있으며 조직원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추산한 것에 따르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인터넷을 통해 IS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촉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접촉으로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IS 가담이

9) "Two Arab countries fall apart". The Economist. June 14, 2014.

실행으로 이어진다.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의 김군 또한 이러한 가담실행의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유엔 아동 무력분쟁 레일라 제루기 특사가 유엔 안보리 보고를 통해 밝힌 것에 따르면 IS는 13세 소년들을 주로 무기 운반과 경계 근무, 민간인 체포 등에 동원하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를 자살폭파범으로 이용해 생명을 일회용품 다루듯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IS에 가담하는 외국인과 소년병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이념적, 종교적 또는 이유 없는 불만 때문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IS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곳의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 판매 수입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집도 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IS 자금의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상당한 규모'라고 표현할 만큼 막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IS는 군사력 강화에 월 400만 달러(약 43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 반군, 이라크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보다 많은 수준이다. IS는 원유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한때는 하루에 200만 달러를 조달하기도 하였는데, 최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 규모가 눈에 띄게 줄자 인질에 대한 협상금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사가 추정한 IS가 지난해 납치를 통해 거둬들인 자금은 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4) IS테러단체에 의한 발생테러 유형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인질참수형테러, 자살폭탄테러, 무차별적 총격테러, 약탈테러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IS테러단체는 서방 국가에 군사적으로 밀리는 경우 '인질 참수'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패배를 선전으로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 참수 동영상을 통한 선전 활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새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10]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질 참수를 시작해 2015년 2월 1일 일

10) 정규진. 미 공습 안 먹히는 시리아 IS, 왜 일까?. SBS. 2014년 10월 5일; 조선미. IS '힘에서 밀리면 인질 참수' 전략. 메트로신문. 2014년 10월 5일; 이정진. '패배 뒤 참수' 행동양식 보이는 IS. 연합뉴스. 2014년 10월 5일.

본인 인질 2명의 참수와 2월 4일 요르단 조종사 처형하였다.

두 번째, 소년병을 활용한 자폭 테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아동·무력분쟁 레일라 제루기 특사는 9월 8일, 유엔 안보리 보고를 통해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어린이 수 백명을 숨지게 했으며 이들 어린이 일부를 자폭 테러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국가가 13세 소년들까지 무기 운반, 경계 근무, 민간인 체포 등에 동원한다며 일부를 자살폭파범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11)]

세 번째, IS테러단체는 총기류 및 중화기에 의한 무장공격을 통해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 등 무차별적 공격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련의 테러사건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31일, IS는 점령지인 안바르주 히트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다 후퇴한 알부-님르 부족원 50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으로 살상하였다. 같은 날 라마디 북쪽에서도 아부-님르 부족원으로 보이는 35구가 발견됐고, 앞서 10월 30일에 안바르주 히트 마을과 라마디 북쪽 등 2곳에서 알부-님르 부족의 시신 220여구가 집단매장 된 장소가 발견되었다.[12)]

네 번째,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기업에게 폭파 협박을 하는 등 정기적인 약탈을 일삼고 있다. 이 강탈은 수익원 중 하나로, 은행 및 금 가게를 약탈하여 재원을 얻기도 한다. 2014년 6월 모술 전투 기간 동안, 지역 주지사에 따르면 모술 중앙은행의 4억 2900만 달러를 약탈한 이후 IS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 단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금괴도 대량으로 유출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역 분석가인 브로운 모세스는 트위터에서 "지하드 전체가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억 2900만 달러로 ISIS는 1년간 월급 600달러의 조건으로 6만명의 병력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13)]

이러한 테러발생양상을 종합해보면 IS테러단체는 인명의 살상 납치, 건물과 재산의 파괴, 위협에 의한 공포조성을 하는 폭력, 폭력사용에 의한 위협의 양상과 테러의 대상이 무차별적 공격의 양상이 무고한 제3자나 민간인을 포함하는 무차별적 공격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 국가 내와 외부에 지부를 둘 정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

11) "IS, 어린이 수백명 목숨 빼앗아…자폭테러 이용도".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2014년 9월 9일.
12) "Al Qaeda tightens grip on western Iraq in bid for Islamic state". 2013년 12월 11일.
13) http://edition.cnn.com/2014/06/12/world/meast/who-is-the-isis/; http://www.ibtimes.co.uk/mosul-seized-jihadis-loot-429m-citys-central-bank-make-isis-worlds-richest-terror-force-1452190; http://www.washingtonpost.com/news/morning-mix/wp/2014/06/12/isis-just-stole-425-million-and-became-the-worlds-richest-terrorist-group/;

고 있다.

2. IS테러단체에 의한 자국 내 테러발생 원인론

1) 문화갈등이론

문화갈등이란 다른 문화의 형태와 요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 혹은 배타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갈등은 상호이질적인 문화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사회내의 하위문화들 간의 조화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다(Huang Ching, 2011: 1-2).

노비스(Adam Novis)에 의하면, 종종 개인들은 부분적 또는 자발적으로 다른 개인들과 문화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동시에 자발적 행위와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행동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을 발생시킨다고 한다(Adam Nobis, 1996: 17-20, 오기성, 1999: 509-513에서 재인용).

특히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살면서 상이한 의식과 사고, 생활관, 생활 감각이 형성된 사람들이 서로 만날 경우, 이들이 만나는 문화의 장에서는 상호 간에 낯선 것들이 충돌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낯선 문화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현상인 '문화적 충격'(cultureshock)은 어느 한 사람이 낯설고, 과거에 습득된 과정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사회체제에 자신을 적용시키는 것이 강용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심영희, 1989: 11).

Sellen(1938)은 한 문화와 다른 문화가 서로 접촉할 때, 문화갈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한 문화가 갖고 있는 지각, 판단, 행위지침 등이 다른 문화와 충돌할 때이고, 둘째 한 집단의 문화의 규범, 가치, 행동양식이 법적으로 상이한 집단의 문화와 규범 속으로 진입될 때이며, 셋째 이주와 같은 인구이동 현상이 문화갈등을 야기시키는 사회·문화적 조건이라고 한다. 문화갈등은 개인의 내적 갈등을 전제하지 않은 사회현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특히 이러한 문화적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일차적 문화갈등은 상이한 두 문화 사이의 경계지역에서 일어나며, 이외에도 특정문화의 법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때, 혹은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이차적 문화갈등은 단일한 문화 내에서의 갈등으로 하나의 문화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화로의 부문화로 진행될 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개인적, 집단적 갈등양상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 소수집단의 불만 내지 분노 표출이 일정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행사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했을 때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 표면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사회 구조 속에서 각 개인이 범죄와 무질서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차별적 배려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최선우, 2012, 87-99), 그러한 갈등 표출의 한 방법으로 자국 내에서도 IS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좌절·공격이론

좌절·공격이론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 개인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의 태도에 의하여 방해를 받거나 좌절을 경험 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이러한 성향이 테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상대적 박탈감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사회가 제공하는 욕구가 만족도를 훨씬 초과할 경우 사회적, 심리적 좌절감이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곧 폭력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김순석, 2010, 5-6).

즉 한국으로 유입된 소수민족 구성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자국 내에서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로 타국에서의 향수와 소외감을 극복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경제적 목적달성이 어려워지는 순간 폭력적인 도발의 동기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자국내 IS테러단체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배경을 설명하기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감염이론

감염이론은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가 테러행위를 확산시킨다는 연구이론으로서 현대사회의 테러리즘 증가에 언론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테러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이론중 하나이다(김두현, 2004: 46). 이 이론에 따르면 테러행위에 대한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 내지는 특종 위주의 발표행위가 잠재적 테러행위를 현실에 끌어들임으로써 모방테러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매스미디어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감염이론에서 발전하여 테러리즘과 매스미디어는 상호간에 공생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공생

관계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활동이념과 주의·주장을 전파하는데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매스미디어는 판매 부수의 증가와 인기도 향상을 위해 테러사건을 확대·왜곡하여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언론기관이 결과적으로 공생관계에 있다는 이론이다(신제철, 2009: 27-28). 즉 테러와 매스미디어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미디어가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를 보도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테러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좀더 '스펙터클한 뉴스'를 쫓는 텔레비전의 톱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폭력적 행위를 치밀하게 연출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려 든다. 이러한 테러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공중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두려움의 전파 외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14]

따라서 이러한 감염이론 IS테러단체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내 테러발생 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대사회의 테러행위가 매스미디어의 파급효과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방테러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있다.

3. IS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현황

IS의 반인륜적 만행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은 일제히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국가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 작전에는 약 60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은 IS 근거지를 공습하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 9개 국가는 병참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군사작전을 맡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최근 인질로 잡힌 자국의 조종사 구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르단 측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자국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IS가 요구하고 있는 사지다 알리샤위 사형수와 조종사를 맞교환 할 수 있도록 이라크 지도자들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종사는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5년 2월 2일 기준)

한편 미국은 이슬람 국가에 억류되어 있는 마지막 미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온힘

14) 주간동아, "테러는 '미디어'를 먹고 큰다.", 2001년 9월 27일 303호.

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6세 여성 구호요원 억류에 자신의 가슴은 찢어진다고 밝혔다. 미국과 동맹국은 그녀의 위치 확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IS 전략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군사대응이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 격퇴 전략을 발표하고 미주도 동맹국들은 6000명이 넘는 IS 대원을 사살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포섭으로 인해 IS는 끊임없이 인력수급을 받고 있기에 미군의 공습은 점차 무력해지고 있다. 미주도 동맹국이 매달 1200여명을 사살한다고 해도 새로운 대원은 계속해서 유입된다. 해외에서 IS로 합류한 대원들은 매달 1000여명에 가깝고 시리아, 이라크로 유입된 외국인 출신 IS 대원들은 90개국 1만 9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 지상군 투입이 부상하고 있다. 지상군 투입이 되면 정보 수집과 군사 작전 수립이 유리해진다. 미국 주도 동맹의 공습만으로는 IS를 완벽하게 격퇴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지상군 은 약 1만 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프랑스 정부는 현재 IS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 동영상 '반 지하드'를 만들어 IS에 맞서고 있다. 프랑스군은 이미 2014년부터 9월 미군과 함께 이라크 상공에서 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프랑스군은 라팔 전투기 9대와 함께 C135 보급기, E-3F정찰기 등을 동원해 IS 격퇴 작전을 수행했다. 또 IS 격퇴 작전을 지원하고자 중동 걸프만에 프랑스군 주력 항공모함 '샤를드골호'를 파견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야만적인 살인자와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 하려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자신들은 끝까지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있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16]

Ⅲ.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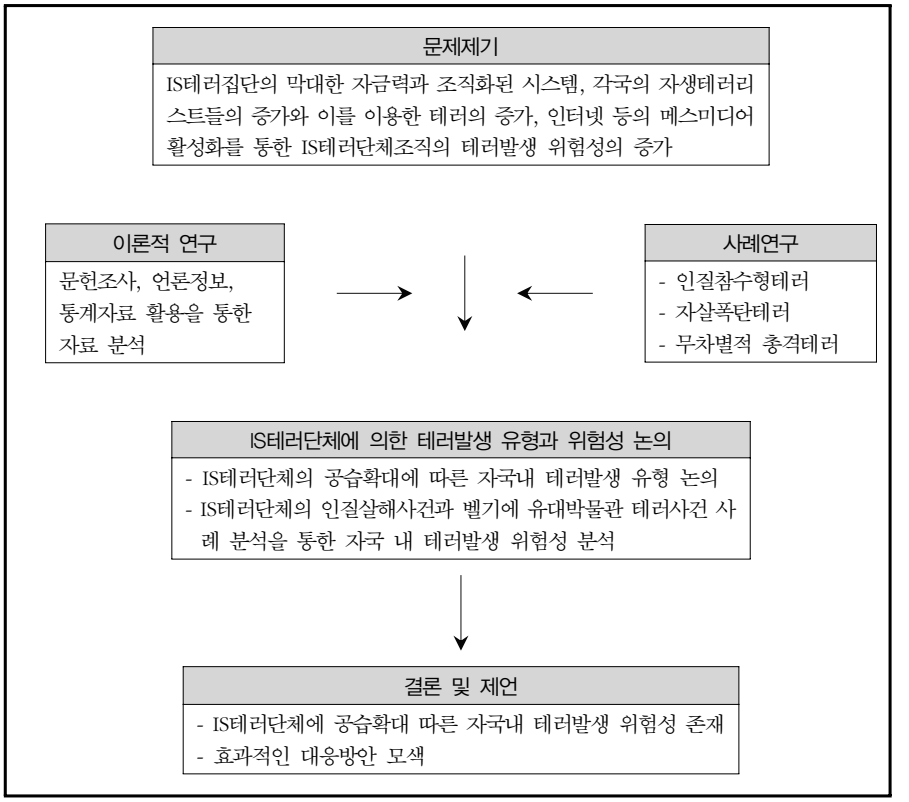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의 위험성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IS테러집단의 풍부한 재원과 조직화된 시스템 으로

15) Peter Beaumont. "How effective is Isis compared with the Iraqi army and Kurdish peshmerga? | World news". theguardian.com.

16) "이슬람국가(IS), 힐러리가 만들었다? 중동서 음모론 확산", 《한겨레》.

인한 IS테러 발생위험 가능성, 둘째, 메스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테러조직과의 접촉이 용이해지면서 IS테러에 대한 가입이 확대되는 데는 상황에서의 IS테러 발생위험 가능성, 셋째, 각국의 '외로운 늑대(Lone Wolf·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증가와 이를 이용한 IS테러 발생위험 가능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행위 유형으로는 인질참수형테러, 자살폭탄테러, 무차별적 총격테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국 내 IS테러단체에 의한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 위헌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논문의 전개 과정

1.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 분석

1) IS테러집단의 풍부한 재원과 조직화된 시스템

IS테러단은 과거 다른 테러집단의 조직과는 달리 사람(men), 돈(money),군수품(munitions)의 3M을 모두 갖추어 풍부한 재원과 조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강영숙, 2014: 22).

IS테러집단의 조직은 흔히들 과거 중동의 최대 테러조직인 알카이다와 같은 테러조직들이 토굴이나, 동굴, 지하실에서 무기를 갖추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테러를 자행했다면, IS테러단체는 운영방식과 형태, 조직구성원 등에 있어서 테러리스트와 군대가 결합한 조직과 같이 움직이고 행동하여 흡사 군대조직과 같은 체제로 조직화 운영화 되고 있다. 알카이다 조직원 대부분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출신인 반면에 IS테러단체는 중동출신 이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 총 80여 개국 출신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어[17]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을 갖춘 테러조직체이다.

이러한 IS테러단체의 조직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세계평화와 반인륜적 범죄를 계속하고 있으며 때로는 경제력 확보를 위해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여 테러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김은영, 2013: 93). 특히 IS단체의 풍부한 재원과 경제력은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등을 장악하면서 유전과 도로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석유를 불법유통·판매하여 테러행위에 필요한 지속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알카이다와 같은 테러조직과 달리 IS테러집단의 풍부한 재원과 이를 통한 조직화된 시스템의 결합은 전 세계를 테러집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히 IS테러단체가 SNS를 통해 선전하는 'IS대원이 누리는 10가지 혜택[18]'을 살펴보면 집세 안내고 주택제공, 매달 용돈지급, 신혼부부에게 700달러 제공, 건강검진, 약값 무료[19] 등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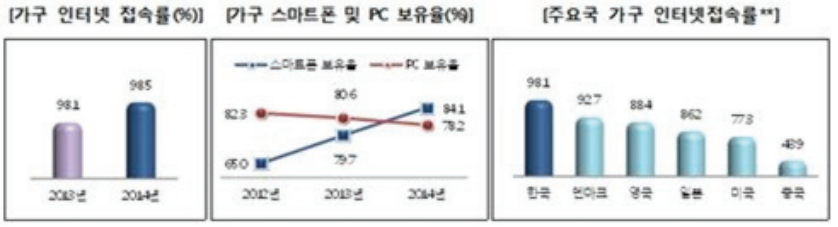
17) 동아닷컴, "초기 칼리프 국가 재건 IS는 어떤 전략을 쓰나..", 2014년 9월 22일자.
18) 집세 안 내고 무상 주택공급, 전기세나 수도세 없음, 매달 식료품 무상공급, 부녀, 자녀에게 매달 용돈지급, 건강검진, 약값 무료, 아랍어 몰라도 생활 가능, 신혼부부에게 700달러 제공, 세금 없음, 기도시간에 일 안함, 다른 인종 간 결혼비율 높음.
19) 중앙일보, "세상 싫다. IS가입 방법 알려 달라", 2015년 1월 22일자.

내 경제적 불이익과 가난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비판력이 약하고 쉽게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10대 청소년들은 자아실현의 방편으로 IS테러집단에 가입하게 되고 이는 후에 자생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자국내 IS테러의 위험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 온라인 등의 이용증가에 따른 테러조직과의 접촉가능성의 용이

최근 터키 킬리스에서 실종된 한국인 10대 김모군(18세)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IS테러단체와 접촉하여 자발적으로 IS테러단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20]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IS테러단체의 가입방법과 조직원과의 접선 등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실 생활에 불만을 가진 많은 청소년들과 일부 자국민이 IS테러단체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IS테러집단은 그들의 막강한 경제적 지원을 앞세워 알하야트 미디어센터 등을 설립하여 첨단 디지털 기법과 유튜브,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7개 언어로 각종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송하고 전투사진을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21]. 이러한 SNS의 활용은 IS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참전 권유 영상을 보고 100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200명의 서구인이 IS에 가담했으며 IS가 참수 등의 잔혹한 동영상을 유포하며 전 세계에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선전용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인터넷 등 모바일 이용실태

자료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20) 중앙일보, "세상 싫다. IS가입 방법 알려 달라", 2015년 1월 22일자.
21) 동아닷컴, "초기 칼리프 국가 재건 IS는 어떤 전략을 쓰나..", 2014년 9월 22일자.

따라서 과거의 테러조직이 중동을 중심으로 자국민에 대하여 테러집단의 가입권유와 선전을 홍보 했다면 IS테러집단은 전 세계인들 특히 인터넷 등의 메스미디어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 게임과 SNS의 활용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면서 IS테러조직과의 접촉 가능성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세력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림 2>의 2014년 우리나라 모바일 등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인터넷접속률은 OECD회원국가 중 98.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터넷접속률 또한 2013년 98.1%에서 2014년 98.5%로 0.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2년 65.0%에서 올해 84.1%로 증가하여 PC의 사용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더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3년 9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청소년(10~19세) 사용자의 중독위험군 비율이 25.5%(111만 7000명)로 성인(20~54세) 중독위험군 비율 8.9%(188만 1000명)의 3배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고, 스마트폰 사용량에 있어서도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였으며 주로 게임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사용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국 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SNS나 메신저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10대들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시공간을 파고들고 있는 IS테러단체에 직접적으로 노출 될 수 밖에 없고, IS테러단체를 반인륜적이고 과격한 단체가 아니라 체계와 정당성을 갖춘 번듯한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국 내 출신이 IS테러조직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IS조직에 의해 전술적인 훈련 등을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 올 경우 테러공격에 나설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서 IS테러조직에 의한 테러 위험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각국의 자생테러리스트들의 증가와 이용

세계 각국은 경제침체와 실업문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이주민에 대한 차별 등이 서로 복잡하세 얽히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세력들을 IS테러단체의 인터넷과 모바일에 기반한 SNS를 통한 사이버 선전전 등으로 끌어들여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을 선동하여 각국에 자생적 테러리스트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테러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3세계의 외국 노동력의 국내 유입,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유학생의 유입 등 국내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자국민의 외국 이주노동자와 체류자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노동자와·체류자의 자국 내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병행되면서 자국 내 국민과 이주노동자와 체류자 사이에 불만이 누적되고 반한감정이 표출되면서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오세연, 2013: 151).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국가와 달리 본격적인 자생테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의 해체현상과 사회적 차별과 대우, 이주노동자와 체류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과 처우, 한국 내 자국민의 외국이주민과 체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IS테러단체로 하여금 인터넷과 모바일에 기반한 SNS를 통하여 직접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고도 자국 내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이나 외국노동자와 체류자 등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2.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범주화

본 장에서는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 발생 위험성을 알아보고자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한 인질살해사건과 벨기에 유대박물관 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국내 테러발생 위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의 대상 범주는 자국내 국민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경우와 자국 내 이주노동자와 체류외국인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두 가지 범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주요사례들로서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된 테러에 대하여 위의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사건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된 테러사건 중 최근에 발생한 인질살해사건과 벨기에 유대박물관 테러사건 사례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내 테러발생 위험성을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여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사례분석

(1) IS테러단체의 인질테러사건

가. 사례

IS테러단체는 2015년 일본인 인질 두 명을 참수하면서 일본 사회가 큰 분노와 충격에 빠졌다. 이 인질극은 2주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인질들이 결국 참수당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다. IS는 2015년 1월 20일에 인질 영상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 영상 속에서 무장대원은 아베 총리가 IS 대항 국가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 2억 달러를 제공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에게 인질들의 몸값 2억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뒤 사지다 알리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건을 바꾸었다. 알리샤위는 2005년 요르단 암만 호텔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알리샤위와 관련이 있는 요르단 정부는 고토 살해 소식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IS는 유카와 하루나를 먼저 참수한 뒤 일본인 인질 석방 조건으로 1월 29일 목요일 일몰까지 테러리스트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고토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 없이 시한이 훌쩍 지났고 고토 겐지는 참수되었다.

살해된 두 명의 일본인 인질 중 고토는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프리랜서 언론인이었다. 고토는 1996년부터 인디펜던트 프레스를 운영해왔으며 르완다 내전의 소년병, 생존자들에 대한 책 여러 권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의 취재는 늘 TV에 방송되었다. 고토는 2014년 4월 시리아에서 IS에 붙잡혀 있던 유카와 하루나를 처음 알게 되는데 유카와가 IS에 억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 잠시 귀국했다가 10월 다시 시리아로 향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또한 인질이 되었다. 또한, IS는 일본인 인질에 이어 이라크 군인, 경찰 3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라크 경찰관 1명과 군인 2명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나. 사례의 분석

IS테러단체의 인질살해사건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들은 서방 국가에 군사적으로 밀리면 인질 참수를 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자신들의 패배를 선전으로 만회하고자 인질 참수를 진행한다. 참수 동영상을 퍼트리는 의도는 선전 활동을 통해 대중 지지를 얻거나 대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S가 참수한 인질들의 공통점은 IS

격퇴작전을 주도, 도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이다. IS는 IS 격퇴를 지원하는 국민은 곧 참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하며 국제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IS에게 참수된 인질은 매우 많다. 지난해 미국인 제임스 폴리, 스티븐 소트로프, 피터 캐식, 영국인 데이비드 헤인스가 있고 그 밖에 엘런 헤닝, 레바논군 알리 알 사예드, 압바스 메들레이, 프랑스인 에르베 구르델에 이어 올해 일본인 유카와와 고토도 처형당했다. 이러한 인질 참수를 당한 국가들은 구출작전의 실패, 협상의 어려움, 연락 채널의 갑작스런 단절로 손쓸 새도 없이 처참하게 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되는 IS의 세계 각국 인질 참수로 인해서 IS 격퇴에 동참했던 국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균열도 생기고 있음을 감지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IS 격퇴에 참여한 국가 중 일부는 소극적인 참여도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 IS의 인질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질 참수는 반IS 동맹국간의 균열 형성이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국 조종사가 인질로 잡힌 요르단은 군사작전을 주저하고 있고, 터키는 더 적극적 역할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자국 기지를 공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인질살해사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IS테러단체는 미국 주도의 IS공습에 참가한 국가들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을 지원하려는 모든 국가를 겨냥해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원해왔던 한국 역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와 호주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도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민간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일본과 똑같은 입장을 고수해온 우리나라 역시 인도주의적 지원국가로 분류된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까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지원 명목으로 18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어 IS가 이를 빌미로 삼는다면 다양한 테러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두 번째, IS테러단체의 자금조달의 유형이 원유사업에서 인질에 대한 협상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IS테러단체는 원유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 규모가 눈에 띄게 줄자 인질에 대한 협상금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자국민이 IS테러단체 또는 자국 내 IS대원을 통하여 인질참수형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 IS가 참수한 인질들의 공통점은 IS 격퇴작전을 주도, 도운 나라의 국민이

라는 점이다. IS는 IS 격퇴를 지원하는 국민은 곧 참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하며 국제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IS 격퇴작전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거나 도운 나라에 속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는 IS 격퇴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벨기에 유대박물관 테러사건

가. 사례

벨기에 유대박물관 테러사건은 2014년 5월 24일 수도 브뤼셀의 유대박물관에 무장괴한이 난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 이스라엘인 부부와 프랑스인 여성, 벨기에인 남성 등 4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이다. 용의자 중 하나인 네무슈는 2014년 5월 30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총 등 무기류를 지니고 있었고 시리아 이슬람 무장 세력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네무슈는 앞서 무장강도 범죄 등으로 프랑스에서 7차례 형을 선고받았으며 총 7년의 복역 기간 중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무슈는 시리아에서 IS 전사로 활동하면서 서방 인질 감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IS에 납치됐다가 지난 4월에 풀려난 프랑스 기자 니콜라 에냉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 푸앵 인터넷판에서 벨기에 유대박물관 테러의 용의자인 메흐디 네무슈가 자신을 억류했던 IS 대원이라고 밝혔다. 에냉은 납치된 인질들을 고문하던 프랑스 출신 IS 대원 중 한 명이 네무슈라며 수사당국이 제시한 영상을 통해 얼굴을 확인했다고 한다. 에넹은 이 날 네무슈가 자신을 구타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네무슈의 폭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했다.

벨기에 대테러 관련 고위 당국자는 CNN방송에 이번에 적발된 테러 조직원들이 '이슬람 국가'(IS)의 지령을 받고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시리아로 건너가 IS와 접촉했으며 미군의 IS 공습에 동참하고 있는 벨기에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테러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안보당국자는 초기에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 건설'을 내세웠던 IS가 미국의 공습 시작 이후 서방국가를 직접 공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IS 공습에 동참중인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국가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나. 사례의 분석

이 사건의 테러범은 프랑스 국적 IS 대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처럼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테러리스트 그룹의 전투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전장에서 체득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테러를 자국이나 제삼국 등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국내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발생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테러에 국경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도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극단주의 유입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소외, 실업,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극단주의의 자양분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유형과 위험성 예측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가나무역의 직원 김선일씨가 이슬람 테러리스트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돼 피살되고[22], 이집트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버스폭탄테러로 한국인 3명이 사망[23]하는 등 외국에서 IS테러단체와 관련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몇몇 테러가 자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자국 내에서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행위는 발생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IS테러단체의 잔혹성과 과격성이 확대되면서 IS격퇴와 관련하여 군사적인 지원국이 아닌 인도주의적 지원국인 일본구민 2명이 인질참수 되어진 상황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라크 난민 등을 위해 120만 달러를 지원하고, 한국정부의 일본인 2명의 참수 사실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인 규탄성명 등을 드러내면서 IS테러단체가 이를 빌미로 자국 내 테러를 발생시킬 위험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IS테러단체의 자국 내 테러발생은 자국민의 외국 이주노동자와 체류자의 증

22) 뉴스원, "우리국민, 테러에 안전할까…김선일 사건 후 국민보호 어떻게", 2015년 1월 29일자.
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82453&cid=43667&categoryId=43667(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노동자와·체류자의 자국 내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병행되면서 자국 내 국민과 이주노동자와 체류자 사이에서 자생적 테러를 통하여 발생될 수 있고, IS테러집단의 첨단 디지털 기법과 유튜브,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SNS)를 기반으로 젊은 세대를 포섭하여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조직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IS테러단체의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테러 유형으로는 위에 각국의 사건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IS테러단체가 직접 테러행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IS와 연계되어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시아파 사원폭탄사건의 자살폭탄테러행위, 프랑스 샤를리엡도에서 발생한 무차별적 총격테러행위, 일본 일질 2명과 시리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인질참수형테러나 화형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드론무인기를 이용한 테러나 사이버테러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 IS테러단체의 테러유형은 다양한 각도의 방법으로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IS테러단체의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가능성은 결코 배제 할 수 없으며 테러형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1.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IS테러집단의 참수, 화영 등의 반인륜적 행위가 유투브나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자국민은 물론 10대 청소년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IS테러집단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자금 조달과 전투원 모집, 종교적 극단주의 선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버공간이 테러의 표적이 되거나 SNS가 테러의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교부는 최근 IS가 아시아인 등 유색인종을 이용해 자신들이 결코 과격하지 않은 다민족, 개방단체임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S테러단체가 영국, 미국

에서 홍보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면 세계 82개국 출신이 IS에 가담해 있고 아시아는 중국, 일본을 포함한 10개 국 출신이 가담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김군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영웅이 되고 싶고 비판적 자아가 약한 청소년들이 IS테러조직을 찾아가는 제2, 제3의 '외로운 늑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김군이 인터넷을 통해 IS테러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70명 수준이었던 김군의 트위터팔로어는 하루만에 370명이 넘는 조회수가 기록되면서 IS테러단체가입 방법에 대해서 묻는 10대들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사이트를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법부터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9·11 테러를 겪고 난 이후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26일에 제정했으며, 영국도 반테러법을 강화해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과 테러조직의 선전물을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테러조장 콘텐츠 차단을 위해 영국경찰은 내무부와 함께 대테러 인터넷부대를 창설하여 인터넷콘텐츠의 불법여부의 평가와 차단에 집중하여 150개 이상의 테러조장 콘텐츠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HM Government, 2011: 77-80).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가능성의 위험이 예측되는 단계와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자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사이버 등과 관련된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의해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이 가능해야 하지만 국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통신감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감청을 통해 다양한 테러 키워드들을 잡아내 테러리스트 의심자를 가려내는데 실질적으로 한계 있어 미국 경우와 같이 테러리스트로 의심이 되면 사전영장 없이도 무한정 통신감청이 가능 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마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각 기관간의 테러정보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 및 역할 분담

IS테러단체가 SNS등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 김군과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더 이상 IS테러단체의 위험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김군의 IS테러단체의 가담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서 김군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각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찰과 국정원 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나 초반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테러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는 만큼 각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대관계와 지속적인 정보 등의 교류를 통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은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와 보안문제는 여러 기관이 한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공적과 조직논리를 내세워 정보교류와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이 오랜 기관간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테러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S테러와 관련된 안보 및 보안 문제에 있어서 각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테러행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행위 발생 시 각 기관을 컨트롤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는 테러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시민과의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IS테러와 연계된 자생테러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의 연결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3. 테러 관련 교육과 안전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발생 가능성은 자국 내 국민은 물론 더 나아가 외국에 있는 재외국인, 근로자, 여행객 등 모든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자국 내 국민에 대한 IS테러단체의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비한 국가와 각 기관의 안전대책의 수립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우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IS테러단체의 잔혹하고 폭력적인 반인륜적 테러행위에 대한 정부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IS테러단체는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가지 게임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IS대원이 될 경우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홍보한면서 사회적 불만이 많은 부적응 자와 비판력이 약한 청소년들

을 가입대상으로 삼아 대대적인 선전과 가입권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IS테러단체의 선전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슈어스팟 등의 은밀한 루트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IS테러단체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한 청소년들이 이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학교, 가정 등에서 IS테러단체에 대한 테러행위가 얼마나 무차별하고 반인륜적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자국민과 해외체류중인 국민에게 테러로 인한 여행금지구역의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테러에 대한 안전강화프로그램 등을 개발·실행하여 테러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와 재외 국민 그리고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교부는 2015년 2월 11일 'IS 사태 관련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 외교부는 이 회의를 통해 주요 국외 대규모 사건사고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연루방지방안과 해외 테러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 예방에 대해 다양하고 진중한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치안불안과 테러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IS테러단체의 테러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IS테러단체의 테러발생위험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가능성 살펴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되어진 인질참수테러, 무차별적 총기난사테러, 자살폭탄테러 등의 사건사례를 분석하여 테러발생 위험 가능성을 진단하고 예측해 보았다.

이를 분석한 결과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공통점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테러집단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자금 조달과 전투원 모집, 종교적 극단주의 선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김군처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영웅이 되고 싶고 비판적 자아가 약한 청소년들을 IS테러조직에 가입시켜 자생테러를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둘째, 각 기관과의 테러정보에 대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이 이우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을 통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에 의해서는 민간단체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자국민 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테러관련 교육과 테러에 대비한 안전강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한다. 사이버상의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IS테러단체의 선전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슈어스팟 등의 은밀한 루트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IS테러단체의 심각성을 잘못 인식한 청소년들이 이에 가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 학교, 가정 등에서 IS테러단체에 대한 테러행위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자국민과 더불어 해외체류중인 국민에게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금지구역의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테러에 대한 안전강화프로그램 등을 개발·실행하여 테러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가능성이 존재하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체류자, 사회부적응자 등이 IS테러단체와 연계되면서 자생테러리스트들로 자국 내 테러발생 가능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의 이민자와 체류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배제, 인식의 전환 등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생테러리스트들이 되어 IS테러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영숙 (2014).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위협실태. 한국테러학회보. 7(4), 7-38. 한국테러학회.

김두현 (2004). 현대 테러리즘론. 서울 : 백산출판사.

김순석 (2010). 다문화주의에 따른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3, 1-19. 한국경호경비학회.

김은영 (2013).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 85-107. 한국경호경비학회.

박기범·강민완·정용태 (2006).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이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2, 149-175. 한국경호경비학회.

신제철 (2009).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제헌·김상운 (2013). 다문화사회의 자생적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한국위기관리논집. 9(2), 49-72. 한국위기관리학회.

심영희 (1986). 한국 사회의 문화갈등과 일탈에 관한 고찰-문화갈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 57-93. 한국형사정책학회.

오세연·송혜진 (2013).한국 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Lone-Wolf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경찰학논총. 6(3), 140-169.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유형창 (2012). 국제화에 따른 한국 내 자생테러발생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1, 125-155. 한국경호경비학회.

최선우 (2012). 다문화사회의 범죄와 경찰에 관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5(2), 187-210.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외국문헌〉

Adam Nobis, Boguslwaw Pawloski (1996). Cultural Conflict: It's Nature, Inevitability and Function, Proceeding of the Fortie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 Society. Sustainable Peace in the World System, and the Next Evolution of Human Consciousness Sep., 17-20..

HM Government, Prevent Strategy (2011).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S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by Commend of Her Majesty.

Huang Ching (2011). Cultural Conflict and Integr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Cross-cultural Management Strategies. Management and Service Science(Mass).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0, 1~2.

〈기 타〉

"IS, 어린이 수백명 목숨 빼앗아…자폭테러 이용도".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2014년 9월 9일.

"Two Arab countries fall apart". The Economist. June 14, 2014.

"이슬람국가(IS), 힐러리가 만들었다? 중동서 음모론 확산", 《한겨레》.

“Al Qaeda tightens grip on western Iraq in bid for Islamic state”. 2013년 12월 11일.

“How did 800 ISIS fighters rout 2 Iraqi divisions? | Military Times”. militarytimes.com

“Iraq city of Tikrit falls to ISIL fighters”. Al Jazeera. 2014년 6월 11일.

“State of emergency: ISIS militants overrun Iraq city of 1.8mn, free 2,500 prisoners — RT News”. Rt.com. 2014-06-10.

Cockburn, Patrick, "Battle to establish Islamic state across Iraq and Syria", 2014년 6월 9일.

http://time.com/2859454/iraq-tikrit-isis-baghdad-mosu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68148 참조.

Liz Sly. "Al-Qaeda disavows any ties with radical Islamist ISIS group in Syria, Iraq", 2014년 2월 3일.

Peter Beaumont. “How effective is Isis compared with the Iraqi army and Kurdish peshmerga? | World news”. theguardian.com.

강훈상. IS, 이라크서 적대 수니파 부족 또 집단 학살. 연합뉴스1. 2014년 11월 3일

뉴스원, “우리국민, 테러에 안전할까…김선일 사건 후 국민보호 어떻게”, 2015년 1월 29일자.

동아닷컴, “초기 칼리프 국가 재건 IS는 어떤 전략을 쓰나..”, 2014년 9월 22일자.

동아닷컴, “초기 칼리프 국가 재건 IS는 어떤 전략을 쓰나..”, 2014년 9월 22일자.

연합뉴스, “김군 'IS 가담 시도' 막지 못한 책임 누구에 있나”, 2015년 2월 4일자.

연합뉴스TV, "김선일씨 살해한 집단도 IS", 2015년 2월 4일자.

이데일리뉴스, “IS연계 단체, 파키스탄 시아파 사원 폭탄테러..61명 사망”, 2015년 2월 1일자.

이정진. '패배 뒤 참수' 행동양식 보이는 IS. 연합뉴스. 2014년 10월 5일.

정건희. IS의 계속되는 잔혹한 전쟁범죄… 이라크 수니파 300명 처형. 뉴스1. 2014년 11월 1일.

정규진. 미 공습 안 먹히는 시리아 IS, 왜 일까?. SBS. 2014년 10월 5일

조선미. IS '힘에서 밀리면 인질 참수' 전략. 메트로신문. 2014년 10월 5일

주간동아, “테러는 ‘미디어’를 먹고 큰다.”, 2001년 9월 27일 303호.

중앙일보, “세상 싫다. IS가입 방법 알려 달라”, 2015년 1월 22일자.
티비이데일리, “IS 요르단 조종사 살해, 日도 참수…韓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2015년 2월 4일자.

【Abstract】

A study on the risks of terrorism raids in domestic occurring through of the Islamic State of IS terrorist groups

Oh, Sei-Youen
Yun, Gyeng-Hui

Recently the Japanese hostage crisis with Syria, the stake of the pilots IS of the terror group's affiliates like Kim incident occurred while urinarado IS not an exception anymore in connection with terrorism will not be able to do. In addition, particularly against terrorist groups worldwide, IS being a hero has been marginalized and wants uncritical drugs aimed at teens, such as dialog or game IS through SNS joined nationals as well as other countries, while recommending domestic complaints until the people power or luck, put the older brother can sign up for any terror group IS the terrorist group's terrorist acts while making the environment a national mark by foreigners or immigrants can be caused by the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is IS serious for the terrorist acts of the terrorist group, I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terrorist group caused the terror raids of about the dangers of foreign countries to review the case, and the incident has sought ways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rapporteur. The result I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terrorist group caused the terror raids of the dangers of sex exists and that causes a response to the implemen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S brokering for the site of the terrorist group's approach to counter-terrorism Act will be a, and the next, each agency and terror for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serves as a reexamination of terror occurred through the quick a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he language.

Finally, the duties related to terrorism for teens, especially education and strengthen the safety program development and against terrorism should be carried out.

Key words : IS terrorism, Islamic terrorism, hostage beheading terrorism, suicide bomb terrorism, indiscriminately shooting terrorism.